

#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 해답 있어

##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2)

상좌부불교의 전통은 방어전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고 불살생계를 확고한 규칙으로 지켜 한다. 점에서 절대적 평화주의에 근접해 있다. 대승불교, 특히 동아시아의 대승불교는 정의의 전쟁론과 조건적 평화주의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대소승의 어떤 교설에 의해서도 전쟁에 참여하고 무기를 드는 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이며 방어 전쟁이라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결국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을 만드는 입장이다. 또 다른 쪽은 오늘날의 전쟁이 개인과 집단의 존폐만이 아니라 국가와 그 속의 종교교마저도 파괴하기 때문에 침략자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막기 위해 불교인이 방어 전쟁에 그리고 그 준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불경에는 앞에서 살펴 본 대로 양쪽의 주장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붓다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무엇이 정법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불경의 내용 중에서 붓다의 교법을 가려내려면 암베드카르가 세운 기준에 비추어본다. 그것은 1)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 2)인간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인가 3)모든 사물을 명확한 것과 불명확한 것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견해를 후자에 대해서는 임시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붓다의 특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붓다는 교조적 규칙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폭력(Ahimsa)과 불살생을 설파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세상에는 예외가 없는 규칙이란 있을 수 없다. 현실세계에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처하는데 있어서 비폭력, 불살생이라는 가르침 하나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폭력 불살생을 대처하는 것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원래 '최고의 법으로서의 아힘사'(Ahimsa PermoDharma)는 자이나교에서 가르치는 극단적 교의로서 붓다의 교의는 아니다. 이 점을 갈통(Johan Galtung)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선 불교는 자이나교에서 주장한 아힘사의 개념을 다른 생명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비와 선행의 개념으로 재해석했으며 아힘사와 정의(justice)를 연계시켰다. 그럼으로써 불교에서 아힘사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가치를 갖게 됐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특정 한 존재와 같은 몸으로 보게 되며 서로 연결된 사자들의 연속인 세계에서 다른 존재를 상관없는 존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는 인간 존재 사이의 상호연결을 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불교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의 관계라는 매개체 없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

아힘사에 관해 붓다는 "다른 생명의 살생을 원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을 할 필요성"을 구분했다. 이는 아힘사의 원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붓다에게 있어서 아힘사는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힘사에 대한 붓다의 입장은 '살생하려는 의지'와 '살생할 필요성'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붓다는 살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살생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며 살생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의지로 살생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다. 아힘사에 관한 이러한 붓다의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지켜야 할 건전한 도덕적 교의이다. 붓다 당시 브라만교는 살생의 의지를 허용했고 자이나교는 무조건 살생하지 않을 의지를 강조했다. 붓다는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중도를 유지했던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붓다는 원칙(principle)과 규칙(rule)을 구별했다. 붓다는 아힘사를 원리이며 생활방식으로 선포한 것이지만 교조적 규칙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 원칙을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불가피하게 살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다. 반야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리는 사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 그러나 교조적 규칙은 그렇지 않다.

교조적으로 되면 사람이 규칙을 파괴하거나 규칙이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둑이 눈앞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있는데 불살생을 교조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규칙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비폭력과 불살생을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의도적이고 불필요한 폭력과 살생을 피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붓다의 정법(Saddhamma)이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해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지혜를 담고 있고 선악이 늘 대치하고 있는 현실세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분명히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과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호국불교는 불교가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 호국불교의 논리

한국에 불교가 도입된 것은 외침을 막고 나라를 편안하며 민생이 안정되기를 기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범흥왕의 언급에서 볼 수 있다. 범흥왕의 뒤를 이은 진흥왕은 그 뜻을 받아 불법을 철저히 신봉하고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는 고구려를 쳐서 10부를 취하고 고구려의 고승 해랑을 데려와 신라의 승통으로 삼고 호국불교의 의식인 백교좌강과 팔관회를 실시해 한국불교가 호국불교로 발전하게 한 출발점을 마련했다.

〈묘법연화경〉(인왕반야경) 〈금광명최승왕경〉 등 〈진호국가삼부경(鎮護國家三部經)〉은 나라를 진정하고 수호하는 삼부경이란 뜻이다. 곧 국가의 위안과 재액을 소멸하고 적을 항복시켜 국가를 태평하고 부강하게 위한 목적으로 읽는 경전이라는 것이다.

호국불교의 기본원리는 '호법(護法) 즉 호국(護國)'라는 것으로 불교의 정법(正法)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 과보(果報)로 국가를 안온하게 지키고 민생이 태평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호국 관련 경전에 나와 있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조계종 군종부사들

호국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국왕이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하고 불사(佛事)를 크게 일으키면 불교가 절대적 평화주의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 ② 국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보호되고 비법으로 다스리면 나라가 혼란하고 위태해질 국망한다.
- ③ 자주 모여 국정을 의논하고 예와 의를 숭상하는 등 7불새법을 지키는 나라는 어떤 적도 침범할 수 없다.
- ④ 국내외를 어지럽히는 적은 죄 없는 백성을 해하고 학대하는 것이므로 무력으로 백성의 고통을 구해줘야 한다.
- ⑤ 정법을 지키고 호국교의를 행하면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이 지켜주어 외침과 내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 중에서 ①② 항목은 〈반야경〉을 읽고 의식을 행하며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호국이 된다는 교설은 정법을 존중하고 정법으로 다스리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어느 국가든지 자유, 평등, 평화, 우애 등 붓다의 정법을 받아 지니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논지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덕적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오늘 날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치국의 원리이므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국왕들이 불교적 국왕의 전범인 전륜성왕을 본받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후까지 없게 하는 일곱가지 법)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면 어느 국가도 이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내치를 근본임을 설하고 있어 치국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⑥번은 붓다의 힘과 붓다의 정법을 지키는 여러 신장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준다는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정법에 해당한다는 보기 어렵다. 신에 대한 믿음이나 초자연적 것 것에 대한 믿음은 불교에서 정법이라 볼 수 없으며 앞에서 열거한 비법에 해당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④번 국내외를 어지럽히는 적은 무력으로 구해줘야 한다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부분에서 대승열반경의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도 좋다. 그 교설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한 교설과 같은 맥락이다.

호국불교는 이러한 교설에 의해 정당화돼 왔다. 신라 원광법사는 불교의 계율을 세속 생활에 적용하여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말하면서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하라"(殺生有擇)고 함으로써 세속생활에서 특히 국가 방위를 위해서 살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원래 계율을 붓다가 제정하는 것인데 원광은 스스로 살생유택을 포함한 세속오계를 제정했다. 이는 한국불교가 소승 계율이 아니라 대승보살계 정신에 따르는 전통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7)

### 들뜸을 진정 시키는 사마타

삼(Sam)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는 사마타(samatha, Sk. Sāmātha)이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용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위빠사나(vipassanā, 觀)와 대응하는 사마타(samatha, 止)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아디카라나-사마타(adhikaraṇa-samatha)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다름을 진정시켜 없애는 멸정(滅靜) 혹은 진정(止靜)으로 번역된다. 셋째는 산티(santi)나 산타(santa)와 같이 번뇌를 소멸한 상태를 말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열반(涅槃) 혹은 깨달음(悟)의 경지를 의미한다.

위빠사나와 대응해 쓰이고 있는 사마타의 용례와 의미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마타(samatha, 止)와 위빠사나(vipassanā, 觀)는 초기경전에서 같이 다루어진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영지(靈知)의 일부이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위빠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無明)이 제거된다."(AN I, p.61)

"나는 자기 내면의 마음이 사마타(cetosamatha)를 얻으면 증상해법(增上慧法)의 위빠사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구들은 선법(善法)에 머물면서 모든 번뇌를 멸진(滅盡)시키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AN V, p.100)

이러한 사마타란 마음(citta)을 닦는 것이고, 위빠사나란 지혜(pañña)를 닦는 것이다. 사마타를 닦으면 탐욕(貪欲), 즉 정의적(情意的) 번뇌를 떠나게 되며, 위빠사나를 닦으면 무명(無明), 즉 이치적(理智的) 번뇌를 떠나게 된다.

또한 약간 후대에 성립된 〈무애해도(無礙解道)〉에서 사마타란 심일경성(心一境性, cittasekaggatā)으로, 사선사무색정(四禪四無色定)에서 모든 장애나 마음 작용(尋伺)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반면 위빠사나는 무상관(無常觀)·고관(苦觀)·무아관(無我觀)을 말한다.(Paṭisambhidāmagga, pp.97-98, 172)

한마디로 사마타는 넓은 의미에서 선정(禪定) 가운데 정(定)에 해당되고,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에서 정(定), 즉 증상심학(增上心學, adhicitā-sikkhā)에 해당된다. 반면 위빠사나는 정(定)과 밀접하여 떨어질 수 없지만, 증상해학(增上慧學, adhipaññā-sikkh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마타는 마음을 닦는 것이고, 위빠사나는 지혜를 닦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에 있어서 두 가지는 병행해서 닦아야 한다. 이를테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선정(禪定)은 불가능하고, 선정의 성취 없이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그에게 열반은 진정 가깝다."(Dhp. v.372) 이와 같이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에서도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두 법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MN III, p.289)고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빠사나와 관련된 사마타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들뜸(掉舉, uddhacca)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들뜸의(不律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율의(律儀, sarīvara)를 닦아야 한다. 방일(放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방일(不放逸, appamāda)을 닦아야 한다."(AN III, p.449)고 되어 있다. 들뜸, 즉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켜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사마타는 정(定), 즉 증상심학(增上心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마타는 어디까지나 수행도(修行道)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결코 구극(究極)의 깨달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 (사)한국불교 정토종 종회의장 설정스님께 질문합니다.

인천 계산동 덕수사 주지스님인 성철스님 저 홍보살(윤표)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살아온 것은 당신(스님, 한보살, 덕수사총무, 박보살들이 나를 위하여 행동하였다는 말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 할 때가되어 이글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고 있는 스님을 저에게 소개하여 줄때는 잘살라고 소개를 하여주고는 불과 한 달도 안되어 헤어지라고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목스님께는 "홍보살이 남자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이야기 하고 나에게 스님에게 어떤 고생을 안한다고 이중적인 말로 이간하면서 신을 먼저 받으라고 한 이유가 고작 스님의 신분으로 신도를 무당(박보살)에게 몇 푼의 돈에 매매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것입니까? 또 나는 모른다? 하고는 군자의 위선 뒤에 숨어 변명을 하고 싶은지, 또 보살이(한 총무보살) 하는 일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여자 뒤에 숨고 싶으신지, 아니면 나는 몸이 아파서 잘 모른다고 병 뒤에 숨고 싶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로 스님의 신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위선과 거짓말로 망쳐 놓고는 뽐뽐하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는 할 말정 "모든 것이 여자 한 사람때문에 스님들의 우정도 잘못 되고 스님도 망신을 당하였다고 말하지요? 저 때문입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시지요? 스님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꾸민 일을 모두 저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스님과 한 보살이 소개한다고 아단을 피워 소개를 받아서 서로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라고 하면서 소개를 잘못 하였다"고 아단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라 하고 신을 받는 다고 하였으니 신을 빨리 받으라고 서둘러서 제가 신당을 꾸밀 돈도 능력 이 없다고 하자 박보살(무당)이 신을 받고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하였지요? 스님도 알고 있지요, 박 보살 집에는 짐을 잘 수 있는 방 하나 밖에 없다고 사실을. 그것도 부부가 함께 지는 방에서 함께 자고 생활하는 저는 얼마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지 한번 생각을 하여

보세요. 어찌 하든지 스님(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그 악령속에 넣어 두는 제가 남자 관계가 많이 있고 사생활이 매우 복잡한 보살이니 물었다고 세목스님께 이야기 하였지요? 그리고 스님이 중국을 다녀와서 나에게 한 모든 이야기도 삼자대면에서 그것을 외면할 목적으로 "내가 그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이 이야기한 것이라 분명히 답을 하였지요. 그때는 인정을 하고는 지금은 또 아니라고요? 군소종단의 종회의장이고 사찰 주지스님이라는 사람이 어찌 거짓말을 그리도 잘합니까. 그리고 신을 받는 날짜를 모른다고요? 한 보살은 직접 궁당에 와서 보고 당신은 수시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보고 받고는 모른다고 말합니까? 무당(박보살)은 내가 강하게도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스님도.

그리고 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어찌 침묵하시는지요. 내 돈은 그냥 먹어도 되는 돈이 아닙니까. 빨리 보내세요. 나는 무당(박 보살)에게 총 천천백오십만원(17,500,000)주고 그중에서 칠백만원 (7,000,000)을 한 보살(총무)과 함께 은행에 가서 찾아서 주었는데 그 돈이 내가 피뎌서 벌어서 모은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남자와 남자끼리 대화한 말을 박보살 한보살에게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는 스님이 또 모르는 일이라고 위선 뒤에 숨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몇년 동안 사건 도반을 배신하고도 뽐뽐하게도 자신의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정당화 하려는 설정스님을 고발 등 법에 호소할 것입니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또 이야기 하니 변명을 하고 싶으면 하시지요. 나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디라도 잘 것이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는 이 글을 떠나는 마당에 내가 무슨 말을 할 할까요. 이것도 모두 당신들이 거짓말로 내가 피해를 보지만 두번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꼭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에 호소할 것이니 그때 보도록 하지요.

2011년 12월 16일 홍 보살

\*이 광고는 본사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고주 개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 21세기 최대이슈 건강 부귀 장수하여 120세 살수있는 도전! 천지창조 대일여래, 부처님을 탄생시킨 화룡신선님의 도법의 잣대로 도인 신선 황제를 탄생시키는 경신도통 신묘년 루진통 및 2012년 임진년 대운맞이 대법회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대자연의 이소식은 도를 통한자만이 아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즉, 피라미드의 생명인 것이다.

- ◆ 경신도통이란 멸치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이 붙은 신을 떼지 못하며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신묘년 2011년 12월 30일 ~ 31일 루진통 경신 일 자신이 도통하여 성불 받는 것이고 만장만장아울 사 되는 것이며 천지개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 ◆ 천장지비는 비부자요 부부자는 불용이니라 욕다죽패 안이요 욕사죽개안 광명이라. 지자는 능자요 부지자는 유안부지니라. 천왕포동이며, 만장 아물사로 억조창생이니라. 만물조성이요 사물법정이며, 천탈사기하니 자기자명이니라. 이시대에 이 소식 아는 자는 도통군사와 만장만장 아물사이니라.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민족의 열과 혼으로 효도한자만이 무공조화를 부리는 초능력을 얻어 불가사의한 힘으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시대에 그대를 초대하오니 동침하시어 생명의 자리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인공이 되어 다니는 현관을 찾아 건강득도하여 화룡신선 천마공의 잣대를 얻어 만조백관 만인이 칭송하는 루진통으로 부귀장수 건강대운으로 120세에 도전하시어 일류 스승 되소서. 여래후 오백세 동안 방편 불교로 참선 열불 독경 정진 수행으로 성불했다 하더라도 귀신마왕에 지고마는 것은 현관인 자성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육경신 루진통을 수행한자만이 마음을 열어 자성인 성품이 다니는 현관을 열어 내 주인공을 본자라야 성불이 되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경지를 간자만이 신묘장구대라니를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심 마음 삼자로 쓸수있고 12인연을 보는것이다.

신묘장구대라니 본문 한문 한글 강의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마음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에 일체의 고통을 다스리고, 귀신마왕의 포망을 넘어 도전명을 득도하는 육경신도통만이 그 어떠한 병도 다스리는 의용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초상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동력으로 생명을 문을 찾는 대법회 및 저승사자 면허증 반납하는 날이다.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현관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건강성도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에 수행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경신도 120세에 도전하는 것이다. 본 종단 신분증 및 각종증명서 경신공도 신분증 갱신: 2012년 1월 갱신 없는 자는 일체 무효한다. 총정 태일

●입제: 양력 2011년 12월 30일(음 12월 6일 금요일) (해시)  
●해제: 양력 2011년 12월 31일(음 12월 7일 토요일) (해시)  
●상담전화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농협 029-01-167866 광태일(선착순 접수) 간편한 곳  
전철7호선 신대방상거리역까지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물목련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과부산동시법회: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도량  
상담전화: 051)635-3110 / 010-8533-1601 보현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용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달마중흥본산환성태일합장